

새로운 광산 10년, 지난 50년 넘어서는 발전 이룬다

박병규 구청장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이끄는 지속가능 광산 만들 것" 광산형 자치분권·주민참여예산제 확대·위원회 공개 확장 등 본격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5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광산 10년의 변화·발전'을 목표로 내걸었다.

박 구청장은 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광산구는 1년 6개월 시민국에 약속드린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를 향해 쉽게 달려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자활분야 평가 대통령상,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등 60여 개 개의 평가에서 수상하고, 공모사업 106건에 선정돼 340억여 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어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 군공항 이전 가시화 등 광산은 사상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의 10년은 광산의 지난 50년보다 더 거대하고 놀라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 한해는 광산구민이 구체적인 이익을 고루 누리도록 이 기회를 현실로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주요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가장 먼저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21개 동이 광산구의 '출장 사무소'가 아닌 실질적인 '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정'이 되도록 '광산형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전국 최초 위원회 공개 범위 확장, 미래 기술 진로 체험과 생태전환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

제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하겠다는 게 박 구청장의 의지다.

박 구청장은 특히 각계각층과의 사회적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속성장 일자리 특구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등 노동과 기업 상생 성장의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교육, 특화사업 발굴 지원과 함께 1시간 맛거리 사업 등 광주중성역 인근을 광주 명소로 바꾸는 사업 등도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구청장의 일 욕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촌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확대,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 로컬푸드 전문관,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사회 처방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소 운영 등 100세 시대 건강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관·산·학 연대로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광산의 복지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계획 실현도 올해 중요 사업 중 하나다.

박 구청장은 이와 함께 이종언어 강사 양성, 유학생 진로취업 캠프 등 외국인 주민의 사회 참여 기반을 늘리고, 월곡고려인문화관 역량 강화와 고려인마을 나눔하우스 운영으로 국내 최고 국제도시 광산의 위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 광주 대표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송산근린공원부터 동곡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황룡강생태길30'을 광주시 Y프로젝트와 적극 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구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고 있다. <광산구 제공>

계하고, 파크골프장 확충 및 전국 단위 생활체육 대회 개최, 광산뮤지페스티벌 지역 대표 축제 육성 계획 등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등 마을별 탄소중립 거점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을 실행하는 한편 도심 속 유아숲 체험원, 자녀 안심숲 조성, 다화용 공유킵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충 등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단체의 참여를 통한 '광산안전거버넌스' 등 광산의 일터와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참

춤하고 넓은 안전망 구축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손 맞잡으며 서로를 돌보는 광산, 시민의 지혜와 실천으로 마을마다 꽃피우는 민주주의, 상생과 신뢰로 존엄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지속성장 일자리가 올 한해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라면서 "주권자인 시민을 광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옹립하는 길만이 지속성장의 시동을 걸어준다고 믿는다.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이끄는 지속가능 광산을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윤혜영 광산구의회 부의장 유산자율방범대 공로패 수상



광산구의회는 "윤혜영 광산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유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신)이 광산구 유산자율방범대(대장 박영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윤혜영 부의장은 평소 치안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방범 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 등에 힘써 왔으며,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의장은 "남들이 쉬 때 위험을 무릎 쓰고 세상을 밝히려는 고생하시는 대원들이 받아야 할 상을 대신 수상할 듯 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범죄 없는 광산구를 만들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광산구, 2023년 종합 '2등급'

광주 광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종합한 종합청렴도에서 2022년(3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광주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 활동과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갑질 근절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다만 내부 직원과 민원인이 느끼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내외부 청렴 체감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광주환경공단, 2년 연속 최우수

광주환경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개, 원문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전국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평가에서 지방공기업 평균 점수는 93.62점이었으며, 광주환경공단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100점을 득점하는 등 종합점수 만점을 달성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기숙 신임 광산부구청장 취임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 위해 책임 다할 것"

김기숙 신임 광산부구청장이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광산구는 지난 2일 구청 7층 운산원홀에서 2024년 시무식과 함께 김기숙 신임 부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김 부구청장은 서울대학교와 제5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2008년 광주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부구청장은 특히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여성 공무원 최초로 광주시의 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담당으로 발탁된 데 이어 기후변화대응과장, 기업육성과장,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교육원장,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광산구는 일자리, 양성평등, 환경 등 시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김 부구청



장의 전문적인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민선 8기 광산구정의 혁신행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숙 부구청장은 "광주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혁신 1번지인 광산구에서 역량이 뛰어난 광산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돼 무척 기쁘다"며 "민선 8기 광산구의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따뜻한 겨울 지낼수 있는 긴급 임시주거 마련

송정1동,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광주 광산구 송정1동은 "주민과 지역 기업의 참여로 겨울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긴급 임시 주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송정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위기가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발굴단은 매주 2회씩 홀몸 어르신을 중심으로 소외된 주민을 찾아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주민과 함께 동네 한바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폐가에서 이불 하나에만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발견하고, 송정1동과 협의해 임시 거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주민은 현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며 안정을 찾고 있다고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기형철 송정1동 위기가구 발굴단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우리 주변의 돌봄 이웃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구석구석 안부를 살피며 이웃을 보듬는 마을 돌봄이 지속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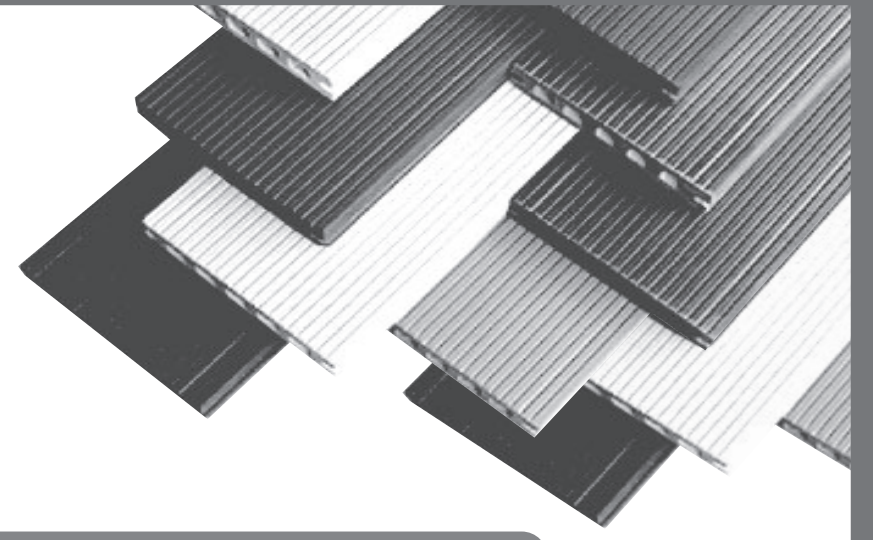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